

# 학문과 예술, 역사를 지나는 '희망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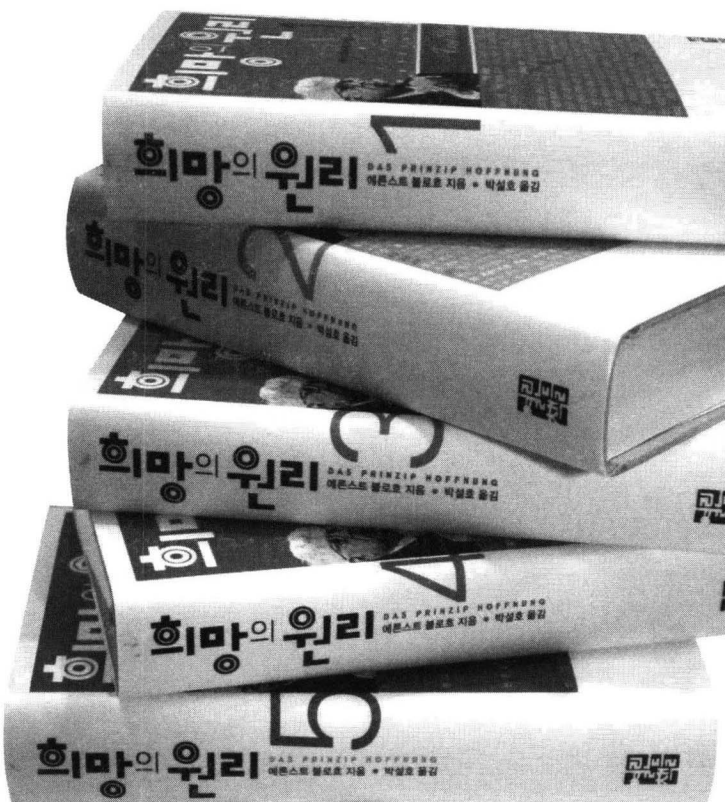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전5권)

어린 시절, 무엇이나 부모나 선생에게 물어보았듯이 어른에게도 지적 스승이 필요하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찾는 일이 아닐까? 내가 존경하는 그 몇 스승 중의 한 사람이 20세기 독일의 사상가 에른스트 블로흐다. 다른 스승들인 사이드나 일리히 또는 푸코보다도 그는 더욱 폭이 넓은 백과사전 같은 전면적 지식인이다. 앞의 사람들에게는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들에 대해 그는 언제나 분명하게 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 사색의 사표이자, 내 마음의 멘토이고, 내 개안의 스승이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이란 그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삶까지 존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블로흐는 그 삶으로도 참으로 놀랍다. 그는 63세로 처음 교수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재야학자로 살았다. 대학 졸업 후 약 40년을 실업자로 철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을지 나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철학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는커녕 출판조차 어렵고, 게다가 그의 책은 너무나도 난해하여 인세로 살지도 못했는데 달리 어떻게 살았을까? 그 수많은 책들을 쓰기 위해 읽었을 더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 샀고, 그것들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읽으며 깊은 사색을 했을까?

게다가 그는 그런 형편에 어떻게 결혼을 세 번이나 하고 루카치나 벤야민을 비롯한 당대의 수많은 석학들과 만나 우정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유대인으로서 나치를 피해 유럽 여러 도시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미국에서는 식당의 접시를 닦으며 어떻게 철학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수많은 책을 썼을까?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평생 희망의 원리를 추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을까? 그토록 절망했기에 희망을 그렇게 절실히 추구했을까?

게다가 남들은 학문은 물론 교수직도 마칠 즈음에 처음으로 교수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학문에 대한 정열에 불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에서 63세에 교수가 되었어도 공산주의 정권과 마찰을 일으켜 10년 만에 강제로 퇴직을 당하고 완전히 고립되었으나, 그 2년 뒤인 74세에 《희망의 원리》를 20년 만에 완성했다. 아니 《희망의 원리》는 사실 50년에 걸친 블로흐 사상의 결산이었다. 학문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만으로도 그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모범이다. 그런 그를 보면 이런 저런 현실을 이유로 하여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도저히 할 수 없다. 블로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희망의 원리》(전5권) 에른스트 블로흐 지음 | 박설호 옮김 | 열린책들 | 값 90,000원

● 이 글을 쓴 박홍규는  
영남대학교 법과대학과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 대학교, 고베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삼영사)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학문을 하고 책을 썼기 때문이다. 특히 최악의 절망 속에서 《희망의 원리》를 썼다. 그렇기에 이 책은 더욱 빛나는지도 모른다.

단독저술의 이론서로 이처럼 3,000쪽이 넘는 책이란 그다지 많지 않다.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그 정도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라는 하나의 분야에 그친다. 반면 《희망의 원리》는 철학이나 문학 또는 역사와 같이 어느 한 분야의 책이 아니라 번역자인 박설호 교수가 말하듯이 서양의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책이라. 아니 사실이 책은 인문사회과학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건축 등 모든 예술분야와 기술, 과학, 의학 등까지도 아우르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백과사전이지만, 그것은 보통의 백과사전과 달리 그 모든 학문과 예술 분야의 《희망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니 그 모든 분야를 《희망의 원리》로 꿰뚫는 사상서라는 점에서 어쩌면 '희망의 백과사전'이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든 학문과 예술, 역사와 세계를 관통하는 이 책은 그 모든 것이 철저히 분화된 우리의 왜소하기 짝이 없는 지적 풍토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동시에 우리의 지적 빈곤을 타개할 지침이 될 수도 있으리라.

3,0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동시에 의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것은 바로 그 제목인 '희망', 즉 '더 나은 삶에 관한 꿈', '유토피아'이다. 전체가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추상적인 총론으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각론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경우에는 사실 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제4,5부의 각론이 더욱 흥미로웠기에 혹시 나처럼 추상론에 약한 독자라면 제4,5부를 먼저 읽고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제4부에는 여러 유토피아-의학, 사회, 기술, 건축, 지정학, 회화와 문학-가, 제5부에는 희망의 인간상-돈 판, 오디세우스, 파우스트, 돈키호테와 함께 음악과 종교 및 선이 논의되고 있다.

그 하나 하나는 개별적인 논문으로 읽어도 좋을 만큼 완벽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 가령 그의 《돈키호테》에 대한 설명은 《돈키호테》를 읽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핵심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블로호의 이 책은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나 아우어바흐의 《미메시스》와 같은 문학사상서를 겸한다. 물론 블로호의 책은 그들 책보다 더욱 넓고 깊은 철학과 사상,

문화와 문명의 차원으로 나아가 철학사와 사상사, 문화사와 문명사를 겸하기도 한다.

이 책의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독자들의 독서 호기심을 꺾는 어리석은 사족이 되겠지만, 그가 독일로 글을 쓴 서양의 사상가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자 한계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가 1977년에 죽기는 했지만 그 사상의 뿌리는 16세기 르네상스-18세기 낭만주의였고, 그 사상의 핵심은 19,20세기 서양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회자되는 이 시대에 모더니즘을 무조건 부정하는 경향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헤르만 헤세의 평처럼 "품위 있고, 공정하며, 방법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사유라는 시민사회의 전통"이 블로호에게는 분명하며, 특히 일반적인 사회주의 문헌과는 구별된다.

물론 블로호 역시 그 모더니즘의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며, 특히 그 부정에는 제국주의-식민주의라는 문제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호가 말하는 희망이야말로 역시 우리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가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함께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주장하는 희망에 대한 희망을 우리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의 나라에서, 새로운 고향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희망으로 박설호 교수 역시 10년이나 걸려 이 책을 번역했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에 나는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번역이 부당하게 경시되는 우리의 지적 풍토에서 난해하기로 소문난 블로호 책을 완벽하게 번역한 그에게 나는 너무나도 고맙다. 번역을 해본 사람이면 3,000쪽이 아니라 300쪽도, 아니 단 3쪽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잘 안다. 나는 그가 그냥 10년이 아니라 그 10년을 '모두, 꼬박' 그 번역에 바쳤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노고는 한 편의 논문보다 하나의 책 번역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우리 학문풍토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바보짓이기 때문에 그의 노고를 더욱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박설호 교수나 나나 독자들이나 우리에게도 이런 대저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이리라. 우리의 《희망의 원리》가 꼭 씌어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희망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